

2019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 공모 참가 매체

□ 참가매체 및 게재조건

구분	신청 매체명	게재 가능 원고 종류	기대주제	횟수		분량		게재 기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오프 라인 (총7건)	미술세계	주제비평	동시대 한국미술의 흐름	2회	3회	30매	50매	7-12월
	사진예술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현대사진의 미학	2회	3회	30매	50매	8-12월
	시방아트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군소지역의 문화와 지역미술	2회	3회	30매	50매	7-12월
	아트인컬처	주제비평, 전시비평	국내 현대미술 현장 비평	2회	3회	30매	50매	6-12월
	월간도예	전시 비평, 현장 비평, 기획기사	작가론, 전시비평	2회	3회	30매	40매	7-12월
	월간미술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3회	3회	40매	50매	10-12월
	전시가이드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2회	3회	30매	50매	7-12월
온라인 (총6건)	서울아트가이드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미술계 발전 방안	2회	3회	30매	50매	7-12월
	씨워드	작가론, 주제비평	현대미술, 젊은 작가	2회	3회	30매	50매	7-12월
	아트조선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론	2회	3회	30매	50매	7-12월
	아트신	주제비평, 전시비평	동시대 전시의 방법론과 주제의식	2회	3회	30매	50매	7-12월
	앨리스온	전시비평, 기획기사	-	2회	3회	30매	50매	9-12월
	크리틱-칼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작가론, 주제비평, 전시비평	2회	3회	30매	50매	7-12월

□ 참가매체 소개

번호	매체명	소개
1	미술세계	<p>매체 소개 (www.mise1984.com)</p> <p>『미술세계』는 1984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미술전문 월간지로서 2019년 5월호 까지 통권 414호를 발행했다. 한국 현대 미술사를 개척해온 원로작가부터 새로운 시각을 보이는 신진작가까지 미술인들의 목소리를 치우침 없이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대 한국 미술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주요 전시와 미술의 역사까지 넓은 시야로 미술계 소식을 담은 『미술세계』는 미술담론의 플랫폼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정론지로 자리 잡았다.</p> <p>특히 2016년 개편 이후 전문지로서 깊이는 유지하되, 읽는 재미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꼭지 구성을 새로이 하고, 미술전문지들의 단점으로 지적 받아온 고답적이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말투를 순화하였으며, 전문 필자들의 연재 코너를 확장하고, 무엇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또한 논쟁적인 주제를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미술계의 목소리를 담은 최전선의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작가나 기획자, 미술이론 전공자뿐 아니라 아마추어 미술가, 미술 애호가 등 폭넓은 독자층을 보유한 미술세계는 전문가와 대중을 연결하는 창구로서 기능하고자 한다.</p> <p>제공 지면 소개</p> <p>『미술세계』는 독자 분들에게 동시대 미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원고를 기대합니다.</p> <p>현재 김종길 필자의 「민중미술연대기: 1979~1994」와 안진국 필자의 기술 발전과 예술의 상관관계에 대한 「크리틱컬 테크네를 향하여 : 테크네의 귀환 이후 예술」 연재가 진행되고 있어 보다 동시대 미술 현장에 대한 원고가 수록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필자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미술을 바라본 원고가 판단의 기준으로, 특정한 주제로 한정하여 원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사업’으로 이나라 필자의 죽음과 예술에 대한 미학적 논의를 담은 「이미지 인류학과 동시대 미술:이미지와 죽음」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p> <p>글의 형식에 대해 덧붙이면, 다루고자 하는 담론에 대해 명료한 문장으로 담아내며, 담론의 이해를 위해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수록된 글을 추구합니다.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도판을 함께 지면에 수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선정 이후 편집팀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p>
2	사진예술	<p>매체 소개 (www.photodot.co.kr)</p> <p>월간 「사진예술」은 1989년 5월호로 창간하여 2019년 5월호로 창간 30주년을 맞았으며, 통권 제361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사진계 원로이신 이명동 선생이 창간하셨으며, 1992년에는 제1회 문화공보부 선정 우수잡지였고, 1997년에는 한국 잡지언론상 편집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09년과 2016, 2017, 2018, 2019년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어 전통은 물론 역량있는 사진 전문지입니다.</p> <p>사진 전문지로서 월간 「사진예술」은 사진의 역사 180년 동안 발전해온 사진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며, 국내외 사진예술 전반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빠르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포함한 여러 시각예술</p>

		<p>분야의 비평가와 기획자들의 전문적인 비평 및 기획 글, 리뷰를 게재하고, 기획 기사로써 예술 전문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p> <p>현대예술에서 사진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화되었으며, 동시대 사회와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시각예술입니다. 앞으로도 월간 사진예술은 대중 가까이에서 쉽지만 예리한 비판적 시선과 성찰의 태도로써 사진예술과 사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현대예술로서의 사진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p> <p>제공 지면 소개</p> <p>월간 「사진예술」은 2018년 연간 기획기사 "지상 기획전"과 사진 이론가이자 비평가의 기획 연재기사 "사진의 안과 밖-사진과 언어에 대하여"와 "세기의 기획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상 기획전"은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기획자들이 지면상에 전시를 기획하는 형식으로서, 기획의도에 따라 국내외 여러 작가들의 개성있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p> <p>"사진의 안과 밖-사진과 언어에 대하여"는 이미지로서 사진과 텍스트로서의 언어의 관계를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살폈으며, "세기의 기획전"은 사진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이었던 전시를 되돌아보면서 "사진표현사"를 탐구하였습니다. 기획 연재기사만 아니라 사진예술은 매월 외부 비평가의 전시 리뷰 기사를 진행하여 국내외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세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p> <p>「사진예술」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을 매체로 한 다양한 시각예술에 관심이 있으며, 외부 필진의 전문적 지식과 비평적 태도를 통해 사진예술을 바라봄으로써 사진 분야의 비평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사진의 역사에서 현대 사진의 예술적 표현의 흐름을 되짚고, 현대예술에서 사진을 매체로 작업하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새로운 사진예술의 비전을 살필 수 있는 기획 및 비평 글을 통해 사진예술과 사진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p>
3	시방아트	<p>매체 소개 (www.seebangart.com)</p> <p>시방아트는 2012년3월에 월간지로 2년을 하다가 이 후로부터는 격 월간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발행을 하며 서울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각문화중심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행 초기에는 주로 과격한 내용을 극적으로 다루기도 하였지만 여기를 거쳐 간 다양한 필진들에 의해 다소 부드러워진 미술중심의 잡지로 변모되었습니다.</p> <p>지역 미술과 지역 예술행정에 대한 이야기, 작가 작품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대도시 서울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은 아류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이 촌스러워도 당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위해 만든 잡지입니다.</p> <p>제공 지면 소개</p> <p>지역의 잡지는 구독자도 많지 않으며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재단에서는 미술잡지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기에 모든 것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비로 되는 잡지이기에 독자층의 기호에 맞추거나 거대 미술단체나 행정에 눈치보지 않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잡지입니다. 미술을 기반으로 말하지만 다양한 사회이야기 및 부조리에 대한 직접적 고발도 가능한 자유로운 글쓰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욕은 xx처리를 하</p>

		<p>며 실명은 공인에 한해서 제공됩니다. 이렇듯 자유로운 지면공간이 될 것입니다.</p>
4	아트인컬처	<p>매체 소개 (www.artinculture.kr)</p> <p>○ 1999년 10월 개간한 아트인컬처(Art In Culture)는 한국 컨템퍼러리 아트씬을 대표하는 미술잡지다. 올해로 창간 20년을 맞이한 아트인컬처는 미술 현장을 면면히 기록해 매달 한 권의 책으로 담아, ‘종이 언론’의 아카이브적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다. ‘잡지 역시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지역, 장르, 담론 등을 가로지르는 이 시대 최고의 작가와 최고의 필진의 협업이 이루어진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p> <p>○ 아트인컬처는 온라인 웹사이트(www.artinculture.kr)와 자매지 아트인아시아(Art In Asia)를 공동 운영하면서 한국의 온오프라인 기반을 뛰어넘어 아시아, 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다.</p> <p>○ 또한, 2013년에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해 국내외 미술계에서 다시 한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부터 새로운 편집장 체제로 달라진 전문지 환경에 변화를 모색했다.</p> <p>제공 지면 소개</p> <p>○ 아트인컬처는 매달 국내외 중견 및 신진 평론가를 필자로 섭외한다. 최신 컨템퍼러리 아트씬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현장 비평부터 미술로 역사를 재점검하는 주제 비평, 기획 연재와 에세이까지 폭넓게 가로지른다. 아트 저널리즘에 특화된 아트인컬처의 에디터십은 기획력과 완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p>
5	월간도예	<p>매체 소개 (www.cerazine.co.kr/CeramicArt)</p> <p>회사명 : (주)월간 세라믹스_월간 세라믹코리아, 월간도예 발행 잡지명 : 월간도예 창간일 : 1996년 4월 1일 통권 : 278호 발간 페이지수 : 약 120 페이지 판형 : 22 x 28.5cm 가격 : 12,000원 우수콘텐츠 잡지선정 : 2019‘ 2017’ 2014‘ 2006’</p> <p>월간도예는 한국의 도자문화 인식과 수준을 넓혀주는 국내 유일의 도자예술 전문지입니다. 도예계의 다양한 트렌드와 문화에 관한 특집을 중심으로 이달의 주목할 만한 작가, 전시소식, 프로젝트 및 비즈니스 뉴스, 라이프스타일 이슈 등 도자예술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담은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p> <p>제공 지면 소개</p>

선호 분야	제공 섹션	지면 주제 및 내용	지면
①작가론	이달의 작가	흠을 주된 재료로 작업하는 작가소개(조형, 실용작품) 작품 주제와 기법, 특징과 의미, 작가와 작업적 배경 맥락 전달 필자 시선으로 살핀 예술관/예술가 탐구한 의도 명시	4~6p
	젊은 작가	젊은 작가 발굴 모색, 참신한 작업, 숨은 실력과 성장가능성 소개	2~4p
②전시비평	전시 토픽	도자예술 전반의 기획전 및 다양한 분야와 협업한 도예전시,프로젝트 리뷰/비평	2~4p
	전시 리뷰	취향과 견문의 폭을 넓혀주는 개인전 및 그룹전 리뷰/비평	1~2p
③주제비평	칼럼 및 오피니언	도예문화에서 일어나는 사건 공론화, 숨어있는 현상들을 비평으로 이끌어내는 칼럼들, 도자예술의 이해를 돕는 대중적인 글쓰기 등	2~4p

-인터뷰 인물사진, 전시장 전경 사진 필요시 편집부 촬영지원가능.
-도자 in 공예 분야 유형 가능

6	월간미술	<p>매체 소개 (www.monthlyart.com)</p> <p>본지는 1976년 중앙일보사가 펴낸 《계간미술》을 모태로 하여, 1989년 《월간미술》로 발행주기를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통권 401호(2018년 6월호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미술전문지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에 국내는 물론, 해외 동시대미술의 흐름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p> <p>=====</p> <p>본지는 국내외 동시대 미술 대부분의 이슈를 담고 있다. 매달 시의성을 담고 심층적인 분석을 요하는 사안을 특집으로 풀어낸다. 작가 리뷰를 통해 동시대 작가의 현재 미적 성취를 독자와 공유한다. 더불어 전시 관련 기사는 비평적 리뷰를 통해 전시기획의 줄기를 동시대 미술사에 상정하려 한다. 꾸준히 게재하는 논단은 우리 미술현장에서 발견한 일정한 흐름을 구체화하여 담론을 만들고 이를 레퍼런스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사안에 따라 1회 게재 혹은 연재 형식으로 이뤄지는 논단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맥락을 살피려 한다.</p> <p>=====</p> <p>본지는 한국미술현장의 목격자 그리고 기록자로서 국내외 미술의 흐름을 짚고, 이를 비평적 시각으로 맥락화하여 미술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소명으로 하고자 한다.</p>
		<p>제공 지면 소개</p> <p>1. 이번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본지는 지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시의성을 담으면서 동시대 미술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개개의 작가나 전시를 통해 이룩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필자가 제기하는 담론을 현재 통용되는 레퍼런스와 엮어 그 시각이 동시대성을 담는 유의미성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함이다.</p> <p>2. 본지가 파악하는 이번 매칭프로그램은 동시대 미술을 보는 새로운 비평적 시각을 발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논고에 해당하는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적절한 지면 배분이라고 봤다. 물론 이는 향후 필자와의 상의에 따라 기사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p>

		<p>3 다만 새로운 비평적 시각은 1회 게재로 구축되기 어려운 바, 중심 주제 아래 갈라지는 3회 분량의 장문 형식의 소논문 형식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p> <p>4. 그러나 필자와의 논의를 거쳐 선정할 주제가 논단의 형식보다 작가론 혹은 전시비평에 적합하다 하면 해당 지면으로 전환하여 게재할 수 있다. 텍스트에 치중해 독자의 흥미도를 떨어뜨리기보다 적절한 사진 배치로 친절하고 읽히는 기사를 제공하려 한다.</p> <p>5. 매칭 프로그램은 비평가와 매체가 적절한 논의를 거쳐 주제와 내용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비평가는 자신의 시각을, 매체는 편집의도의 방향성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와의 세밀한 소통을 토대로 적절한 기사 꼭지를 선정할 것이다.</p>
7	전시가이드	<p>매체 소개 (www.cafe.daum.net/art-preview)</p> <p>월간 전시가이드는 2006년 5월에 창간하여 현재 156호를 발행하였으며, 전국 미술관에서 매월 열리는 전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인 미리 보는 전시와 더불어, 평론 및 기획기사, 전국 갤러리 색인, 전국 갤러리의 지역별 전시일정, 미술계 뉴스 및 공모전 소식, 갤러리 소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미술관련 언론사에서는 전시기사 소개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월 전국 회원갤러리 및 인사동에 배포되고 있습니다.</p> <p>제공 지면 소개</p> <p>월간 전시가이드는 전시미리보기 및 기획기사, 전시평론, 작가 및 작품론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합니다. 매월 전시에 앞서 기사화된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전시를 주최하는 갤러리나 작가에게 전시회를 미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미술전시 전문지입니다.</p>
8	서울아트가이드	<p>매체 소개 (www.daljin.com)</p> <p>온라인 서울아트가이드는 2002년 9월 daljin.com으로 첫 오픈 되었고 2004년에 인명사전을 보강하며 1차 개편 2013년에 단행본 간행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2차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artguide.kr 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발행하는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의 연재 종료된, 현재 연재 진행 중인 칼럼 전체를 독자에게 로그인 없이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비롯한 미술계 관련 다양한 소식과 동정을 수집하여 방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p> <p>미술계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나가야 할 점에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근현대사회에서부터 동시대 예술까지 폭넓은 관심사를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p> <p>제공 지면 소개</p> <p>2019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사업 매칭 원고는 달진닷컴의 칼럼 > 연</p>

		<p>재칼럼 > 스페셜 칼럼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스페셜 칼럼은 미술계 내외의 전문가로부터 그동안 주목해온 미술 현안과 단상에 대하여 게재하는 칼럼입니다. 미술계 현장에서 교류했던 작가에 대한 에세이부터 미술관에서 점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디오가이드에 대한 주목까지 2003년 8월호부터 2019년 5월호까지 137회에 달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p>
9	씨위드	<p>매체 소개 (www.iseaweed.org)</p> <p>*씨위드 추구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간 문화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세계 각지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포트폴리오 취합, 한글과 영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간 상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국내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간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이를 통한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함. • 문화예술적 확장성이나 다양성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이나 수익구조에 취약한 아티스트들과 연대해 사회적 기능을 찾아가는 일 • 문화예술을 이끄는 예술인들이 예술작업을 본업으로 삼을 수 있는 수익사업 모델 창출 • 씨위드가 가진 네트워크 플랫폼 안에는 인적자원이 바로 자산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료화하고, 사회 속 수익모델과의 접점을 찾아 예술가들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표가 된다. • 전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한영신문과 웹진은 콘텐츠 생산지이자 국제적인 매체의 시작점이 되는 제주를 포함, 제주 인접국가와 인접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 향후 타지역/타국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 질적 양적으로 풍성해지고 있는 시각예술을 포함, 다양한 예술활동의 결과물들을 편집해 소개함으로써, 제주의 문화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행사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지만, 다양한 실험과 실행을 통해 폭넓게 확장해 나가려 한다. <p>*향후 활동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모델 제시 <p>-섬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설정으로, 기타 지역, 타국가와 무궁무진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예술허브의 역할을 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성에 고립되지 않는 방법을 탐구하며, 글로벌 문화컨텐츠 생산지로서 가능성을 모색한다. 주활동지인 제주뿐 아니라 매체가 배포되는 모든 지역에서 국내 작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결과적으로는 지역, 국가간 탈경계에 기여한다. - 제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세계를 조망한다. 제주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적 특색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적 실험들을 실천한다. <p>제공 지면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대를 살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전세계의 도시 이곳저곳, 특히나 작업실

		<p>임대료가 싼 외딴 곳에 틀어박혀 있는데, 이들이 어떤 보석같은 작품은 어디서 한 눈에 볼 수 있을까? 갤러리와 미술관에선 이미 지치도록 봐온 놀라울 것 없는 유명작가의 전시만 열리고, 신진 작가들을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길이 요원하다. 전세계에 흩어진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아 보기로 했다. 책상서랍 속에 숨겨진 먼지 쌓인 평론글을 끄집어냈고, 작가들의 노트북에 들어 있던 작업노트를 세상에 꺼냈다. 그림작가, 글작가, 디자이너, 번역가, 웹프로그래머, 기획자, 평론가, 에디터 등 400여명이 넘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참여해 웹진과 오프라인 잡지 형식으로 아티스트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실험한다.</p>
10	아트조선	<p>매체 소개 (www.art.chosun.com)</p> <p>조선일보의 뉴미디어계열 (주)디지털조선일보에서 국내 최초로 인터넷(온라인) 신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매체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아트조선’을 (주)조선교육문화원에서 아트전문매체로 확장시키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구축한 조선일보의 브랜드 파워를 이어받아 온라인 신문 브랜드 파워에서도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케이블방송과 아이리더를 통해 여러 유통경로로 조선일보의 콘텐츠를 가공, 제공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 즉 ‘크로스 미디어’를 도입, 매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여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매체로 미술 분야 관계자 및 구독자에게 다양한 예술소식,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아트조선전문 매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외 전시 기획기사 및 문화예술비평 콘텐츠를 제공한다.</p> <p>제공 지면 소개</p> <p>아트조선은 국내외 미술시장 소식과 문화예술평론은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신진작가 및 중견 작가, 작품성 높은 작품을 선별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제작, 미술애호가를 비롯한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직접 취재한 문화예술 현장 소식을 기사와 함께 사진,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발행하고 있다. 국내 미술애호가와 대중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한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p> <p>스페셜리스트: 대중들에게 신진 비평가 및 평론가의 평론, 작가론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 신진부터 중진, 원로까지, 회화부터 설치, 미디어까지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 작가 섭외, 진행 * 뉴스 : 전시, 아트페어, 미술계 인사, 관련 행사 등 미술계 전반의 새로운 소식을 폭넓게 전달 * 아트 비디오 : 아트조선이 만든 영상으로 작가는 물론 문화계 전반에 걸친 이야기와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업방식에 대한 주제를 짧지만 핵심적으로 그리고, 쉽고 빠르게 전달

		<p>* 전시소개 : 전시 개요와 작품 이미지를 게재하는 '전시 아카이브' 코너로 미디어의 일방적 큐레이션이 아닌 직접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쌍방향 참여 모델)</p> <p>위클리아트 : 그 주의 주목할 만한 전시 조명. 주말에 즐기기 좋거나 가족 단위 관람객에 추천할 만한 전시 소개 매주 금요일 화제의 전시를 추천</p>
11	아트신	<p>매체 소개 (www.artscene.co.kr)</p> <p>2009년 이후 공연, 시각 위주로 리뷰/비평 원고를 실고 있으며, 동시대의 시의 적절한 주제를 다룬 전시, 작품, 독특한 방법론과 매체 형식을 가진 작가의 전시 등을 비평/리뷰로 다루고자 한다. 시각예술 외에 다양한 매체, 장르를 다루려고 하며, 이는 다양한 매체, 장르가 접합되고 충돌함으로써 그 매체, 장르의 확장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음에 기반을 둔다.</p> <p>제공 지면 소개</p> <p>'contribution(기고)' 페이지에 연재되며, 전시를 입체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키워드와 연결지어 접근할 수 있는 비평을 실고자 한다. 가령 이를 통해 큐레이팅, 지난 전시와의 비교, 작가의 방법론의 측면에서 전시를 제3의 매개 지점으로 다룰 수 있는 비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이를 추구하는 비평이 가능할 것이다. 충실한 작품 내재적인 비평을 기초로 하되, 사회나 정치, 예술계와 연관지은 비평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 비평원고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예술가나 큐레이터로 소급되는 전시 리뷰/비평이 아닌, 미술사, 미술계, 미술 담론장으로 연계 및 확장될 수 있는 글의 성격을 지향한다.</p>
12	앨리스온	<p>매체 소개 (www.aliceon.net)</p> <p>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AliceOn)은 2004년 창간되어 현재까지 국내외 (뉴)미디어아트 및 과학-기술과의 융복합 예술 사례들을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앨리스온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미디어들과 이에 반응하는 예술의 변화와 확장에 주목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상과 새로운 의미 생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의 열의가 바로 앨리스온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앨리스온은 새로운 미디어 예술 작품과 창작자, 문화 현상들을 웹매거진 및 오프라인 이슈매거진,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소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미디어 문화 예술의 장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p> <p>제공 지면 소개</p> <p>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AliceOn)은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 및 지면을 할애하여 콘텐츠를 제공받고자 합니다.</p> <p>1. 앨리스온 커버스토리 (Coverstory) : 미디어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이슈 및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카테고리로서 미디어아트의 동향 및 과학 기술과의 접점에 관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p> <p>2. 앨리스온 전시리뷰 (Exhibition Review) : 미디어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목해야 하는 전시를 소개한다. 웹진의 특성에 맞</p>

		<p>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각종 이미지 및 영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시와 그 안에서 소개되는 작가와 작품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로 소개, 조망한다.</p>
13	크리틱-칼	<p>매체 소개 (www.critic-al.org)</p> <p>투고 자격과 주제의 제한이 없는 개방형 독립 웹진 크리틱-칼은 2013년 2월에 창간되었다. 크리틱-칼의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ocriticalgo/?ref=bookmarks)는 구독자가 2019년 5월 8일 기준으로 총 4,921명이고 크리틱-칼 트위터 계정(https://twitter.com/Critic_AI?lang=ko)의 구독자는 총 1,463명이다. 따라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크리틱-칼을 구독하는 구독자는 6,300명이 넘는다. 한편 2019년 5월 8일 기준으로 크리틱-칼을 거쳤거나 여전히 활동 중인 필자는 총 88명이며 이들이 크리틱-칼에 게시한 글은 총 343개에 이른다.</p> <p>크리틱-칼은 다양한 이들이 삶과 예술,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내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크리틱-칼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논쟁적인 글이 적지 않게 게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각예술 분야 웹진으로 인지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크리틱-칼은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더 많은 글이 누적될수록 시각예술 비평 웹진이라는 성격이 지금보다 더 도드라지게 될 것이다.</p> <p>크리틱-칼을 구상하던 시기에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은 사례는 흠어지는 전술 홈페이지와 제너럴 매거진(General Magazine)이 있다. 흠어지는 전술의 동인들은 개인 혹은 팀 단위의 작업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개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흠어지는 전술에 과정, 사진, 영상, 소리 같은 항목을 통해서 매개되거나 기록되었다. 그래서 크리틱-칼은 웹진에 어떤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항목 안의 정보들이 어떻게 SNS에 유통되는가를 흠어지는 전술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었다. 또한 흠어지는 전술 메인 페이지 한편에 서울문화재단과 개인 후원자 쿠키 몬스터의 로고가 위치한 것을 보면서 웹진에 개인후원자 혹은 공공기금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흠어지는 전술의 경우에는 서울문화재단 기금을 받은 해로 추정되는 2011년 활동에 대한 내용 이후로 업데이트된 것이 없는데, 이는 흠어지는 전술의 추진력이 2011년 서울문화재단 기금의 소진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p> <p>제너럴 매거진은 흠어지는 전술과 달리 명확하게 미술비평 웹진을 지향한 곳이기도 하다. 크리틱-칼을 기획할 때 구조면에서 참고할 점이 더 많았다. 가령 한 달에 한 번 필자 중 한 명이 주제를 던지면 그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필자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나 SNS를 통해서 글이 전파되는 구조, 고료가 없는 자발적인 미술비평 웹진이라는 지향점,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폐간을 맞이한 상황이 크리틱-칼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참고할 점들이었다. 특히 제너럴 매거진이 갑자기 폐간된 상황은 크리틱-칼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었다. 만약 크리틱-칼이 제너럴 매거진처럼 갑자기 사라지거나 흠어지는 전술처럼 기금의 소진에 맞춰 운영을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매체와 관계를 맺은 필자, 독자, 후원자의 존재를 간과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크리틱-칼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웹진의 허무한 증발이나 증지가 발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크리틱-칼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자들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 규모에 맞춘 긴축 운영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독자들의 후원금</p>

규모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60~70만 원 내외의 후원금이 모여 이 후원금은 한 번이라도 크리틱-칼에 투고해주신 필자에게 1년에 한 번 5만 원 안에서 필자가 원하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것에 주로 사용된다. 한편 크리틱-칼의 생존력을 유지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주기적인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이고 다른 하나는 메인 홈페이지와 1:1로 포개지는 네이버 미러 블로그(<https://blog.naver.com/redzzongr>)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크리틱-칼은 사실상 시각예술 관련 웹진으로 인지되지만, 필자와 주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 외의 주제를 다룰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크리틱-칼에는 ‘조국 교수의 혁신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릴 최후의 처방전’, ‘일베를 보며 노무현을 생각하다’, 최순실 게이트 시국을 다룬 ‘사실, 진실-이데올로기, 진리: 진리의 텅 빈 공백을 진실로 메운다는 것’, ‘취향입니다, 담론해주시죠’, ‘진격의 거인과 원피스를 통해 본 현대 한국 사회’처럼 시각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글도 게시될 수 있다. 이처럼 크리틱-칼이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능력도 없는 시각예술이 무한경쟁과 인정투쟁에만 매몰되어 스스로 고립의 길로 빠지며 사회의 기생수가 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서투르게나마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제공 지면 소개

2015년을 전후로 생긴 시각예술 관련 독립 웹진의 필자들은 대부분 1980~90년대 생으로 꾸려진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각 독립 웹진에 올라오는 글의 주제는 1980~90년대 생 작가의 전시 및 프로젝트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크리틱-칼도 초창기에는 다른 독립 웹진과 마찬가지로 필자 층과 글들의 주제가 매우 세대 특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특정성은 여전히 크리틱-칼 안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크리틱-칼 페이스북 페이지의 통계항목을 통해서 구독자의 연령 분포도를 살펴보면 1980~90년대 생 독자가 전체 독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크리틱-칼은 초창기부터 필자의 연령대를 넓히는 것을 계속 추구해왔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의 연령대도 소폭 늘어났다. 가령 이름의 ‘마리관장과 친구들: 국제주의와 트리컨티넨탈리즘 시각에서 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사건’, 한재섭의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정치화가 문제인가? 정치의 예술화가 문제인가?’, 최범의 ‘소녀상과 미술 담론-소녀상의 예술학 토론회를 통해 본 한국 진보 미술계의 의식’, 김용익의 ‘#굿-즈 토론’, 이영욱&박찬경의 연재물 ‘얕는 법: 전통 그리고 미술’, 신용철의 ‘그래피티의 마당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놀고 자빠질 것이다.’처럼 40~60대 필자들도 크리틱-칼에 글을 얼마든지 투고할 수 있는 것이다.

크리틱-칼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논쟁적인 글이 유독 도드라졌던 곳이다. 물론, 논쟁의 강도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다. 예를 들어 4회 공장미술제, 예술노동, 《열사에서 친구로》(2014), 《뉴스킨》(2015)의 경우처럼 크리틱-칼의 내외에서 논쟁이 몇 차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및 아티스트 피, 청년관, 신생공간, 《굿-즈》(2015), 강남역 살인사건, 이광석의 『뉴아트 행동주의』, 소녀상, 미술품 유통법 및 미술품 양도소득세, 서울로 <슈즈트리>, 경기창작센터 졸속운영, 촛불집회 등을 다룬 글들의 경우처럼 논쟁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편 논쟁의 연속성 문제를 떠나서 보면 논쟁적인 글은 기

	<p>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글보다 독자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령 2017년 10월 기준으로 ‘페미니즘의 반(反) 페미니즘-강남역 살인사건을 둘러싼 논쟁에 부처’ 는 조회수가 1만 6천 회를 넘겼고 ‘벌레 같은 마음의 한계’는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만 회를 넘겼다. 크리틱-칼에 올라오는 논쟁적인 글에 대한 독자의 주목도가 특히 높은 것은 그러한 글들이 공공성과 맞물리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일 것이다.</p> <p>그렇다고 크리틱-칼이 논쟁적인 글만을 특히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크리틱-칼은 궁극적으로 삶과 예술,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는 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논쟁적인 글은 그러한 지향점의 일부이기 때문이다.</p>
--	---